

● 5월 12일 나의 하루는...

좀더 친해졌으면

자 - 102 - 3

기억이 남는 하루였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우연이 여러번
겹쳐 한 사람을 만났다. 평소처럼 학교에가기위해 7시쯤 일어나
아침밥을 꾸역꾸역 집어 넣고 샤워로하고 가방은 챙겨 승표를타고
약간씩 졸면서 수업을 듣고 점심시간이 신이나서 점심을 먹고
매점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또 지쳐가는 몸은 끈고 남은 수업을 끝내고
집에 갔다 그때 가는도중에 그 아이를 보았다. 7학년 초등학교때
사귀었고 내가 전학온다 해서 절친 아이라. 하지만 중학교때 다시
이근처로 이사오고 1, 2학년 같은 반이 됐었다 왜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자꾸 만났다. 하지만 3학년때 사이가 멀어져 무지서먹해진
우리 그렇게 어이없게 만나고 인사만 가볍게 전냈다. 그렇게
헤어진걸 지금도 후회하고 있다. 평범한 일상에 난버락처럼
갑자기 만났을 몰라서. 그러나 그냥 인사만 한것이 아직까지
기억이 남는건 그애와 친했었기 때문인것 같다. 이만큼 다시
볼때는 그애와 어색하지 않고 친하게 지낼수 있으면 좋겠다.

10222 지승현